



[시장동향] 가수분해 우유단백질 시장, 2027년까지 연평균 7% 성장 전망

- 가수분해 우유단백질 매출 약 1조 8천억원까지 성장



영양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세계 가수분해 우유단백질 시장이 2027년까지 연평균 약 7배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시장조사연구기관인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까지 가수분해 우유단백질 시장 매출이 15억 달러(약 1조 8천 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최근 소화율 개선 등 가수분해 우유단백질의 건강학적 효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건강보조 및 스포츠 식품은 물론 가축과 애완동물 사료로 가수분해 우유단백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품질의 가축 사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축 부문의 가수분해 우유단백질 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출처 : globenewswire.com, 8월 16일자 >

[소비동향] 소비자 4명 중 1명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늘려

- 소화기 건강 강화를 위해 요거트와 유음료 구매 관심 높아져



소화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식품전문회사인 케리그룹이 16개국 약 1만 3천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4명 중 1명이 지난 6개월 동안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 섭취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중 44%가 섭취를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아침식사 시간에 섭취하는 식음료가 소화기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응답자 10명 중 4명이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거트 제품 구매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일과 채소, 유음료 및 아침식사대용 시리얼 또는 그레놀라가 그 뒤를 이었다.

업체관계자는 소화 장애를 앓고 있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화기 등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성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제조업자들은 니즈 충족을 위해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 균주를 활용한 제품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출처 : dairyindustries.com, 8월 13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